

01 교회소식

세상을 밝히는 등불

일간지에 연일 게재되는 이재록 목사의 신앙칼럼 관련 소식과 옛새 동안의 만나(하) 발간 등 활발한 선교 소식.

02 생명의 말씀

옥토의 마음을 이루려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비진리의 마음을 벗어 버리고 옥토의 마음을 이루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03 신앙상담

기도해도 왜 핍박은 계속될까요?

온 집에 충성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과 그동안 감사와 기쁨으로 행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궁구하면 된다.

04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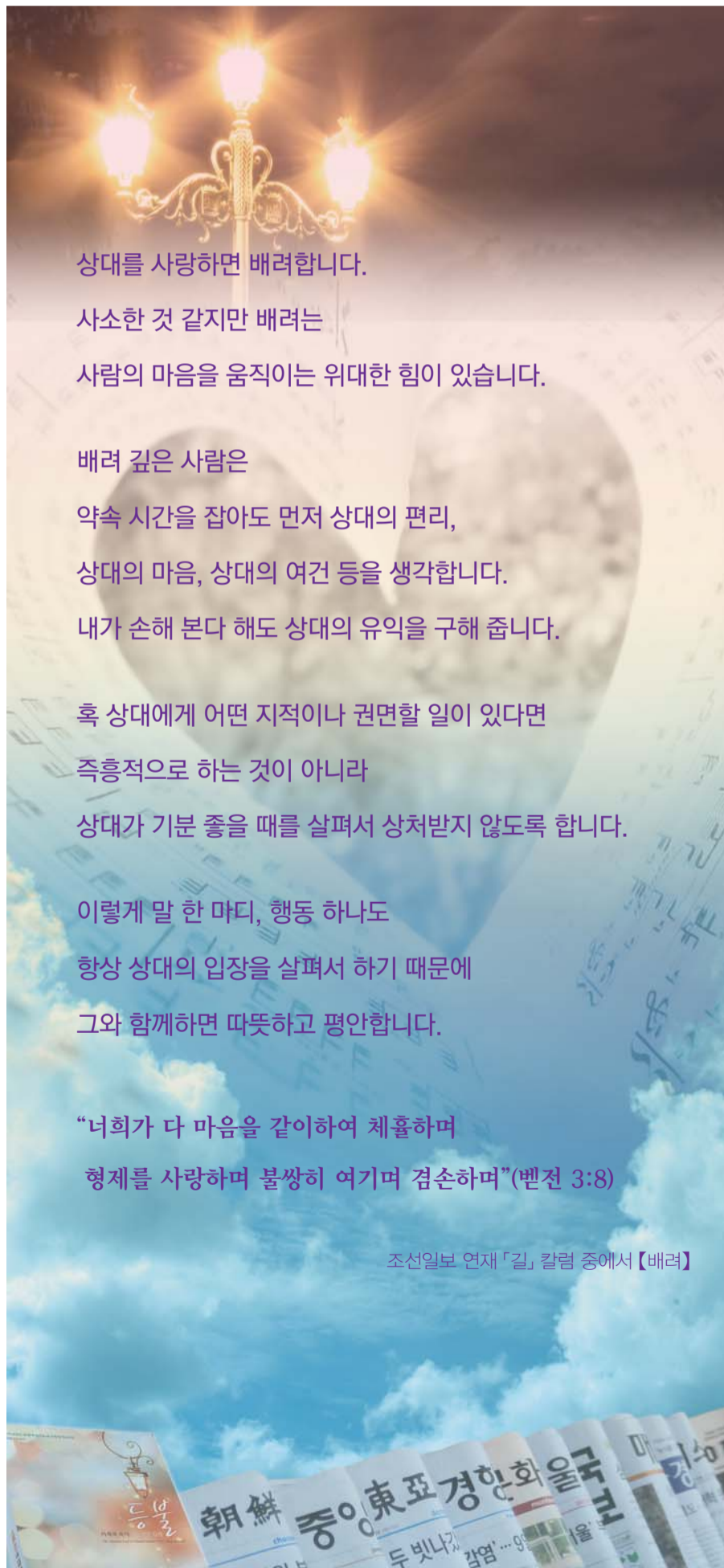
“책자와 손수건으로 복음을 전해요”

문서선교의 비전을 뜨겁게 펼쳐가는 이호상 피택 장로와 손수건 기도로 대상포진을 치료받은 마일린 마시캄보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91호 2015년 6월 2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삶의 소중함 일깨워주는 이재록 목사 신앙칼럼



상대를 사랑하면 배려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배려 깊은 사람은

약속 시간을 잡아도 먼저 상대의 편리,

상대의 마음, 상대의 여건 등을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 본다 해도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줍니다.

혹 상대에게 어떤 지적이나 권면할 일이 있다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분 좋을 때를 살피서 상처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도

항상 상대의 입장을 살피서 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면 따뜻하고 평안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벧전 3:8)

조선일보 연재 「길」 칼럼 중에서 【배려】

대여섯 줄의 짧은 글을 통해 얻는 소중한 삶의 깨달음.

이재록 목사의 신앙칼럼이 일간지와 교계신문, 시사 잡지에 연일 게재되고 있다. 월요일은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에, 화요일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수요일은 한국경제신문, 목요일은 경향신문과 코리아헤럴드, 금요일은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문화일보에 게재되고 있다. 토요일은 크리스찬신문에 창세기 강해 설교가 정기 게재되고 있으며, 시사 잡지인 시사뉴스에서는 인터넷으로 만나 볼 수 있다.

현재 예수교연합성경회 총회장이며 GCN 방송 이사장인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1992년 3월, 한국일보 '길' 칼럼을 시작으로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지혜와 감동을 독자들하고 나눠 왔다. 하나님의 사랑, 창조의 신비로움, 인생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열쇠,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삶, 하늘의 지혜를 받는 길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짧은 글귀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그의 영적 해안과 통찰력은 독자들의 마음을 평안과 진리로 밝혀 주고 있다. 독자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화로 전하는가 하면, 어느 애독자는 “늘 곁에서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는 좋은 친구 같습니다. 칼럼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라고 말한다.

동아일보 '실로암'과 한국경제신문 '생명수'를 제외하고, 이 목사의 칼럼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길'이라는 제목처럼 이 목사의 칼럼을 통해 많은 사람이 사건, 사고, 질병이 창궐한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마음의 길을 발견하길 기대한다.

한편, 매일 업데이트되는 이 목사의 칼럼을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GCN 방송 홈페이지(www.gcnetv.org) '내 마음의 묵상' 코너를 통해서도 영상과 사진, 음악과 함께 묵상할 수 있다.

또한 '지혜의 샘'과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로 보는 '지혜의 샘(상)(하)', '생명의 샘', 그리고 이재록 목사 1분 신앙 칼럼 '등불' 등 책자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오아시스 같은 기쁨을 주는 하늘 양식 매주 성경공부 교재 『옛새 동안의 만나』 하권 발간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레시피 『옛새 동안의 만나』 하권이 6월 13일에 발간됐다.

주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도'와 영적인 믿음 성장을 위한 '믿음의 분량' 등에 대해 다룬 상권에 이어 하권은 마음 발을 개간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한 방법,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신부단장을 마쳐야 할 것과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 의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등으로 구성했다.

이 책자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옥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어 성경 공부, QT, 전도, 설교 등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활용서가 될 것이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 루니스, 북스 리브로 등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옥토의 마음을 이루려면

“... 좋은 땅에 뿌리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흑 백 배, 흑 옥십 배,
흑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18~23)

아야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사단은 자꾸 잡념과 졸음을 심어 주고, 휴대폰과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심지어 마음을 빼앗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생각은 물론 결국 행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사망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노력하고 마음을 다져서 ‘이 시간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 이렇게 다짐하면서 지켜 나가면 어느새 능력이 돼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바로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뽑아내면 원수 마귀 사단이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마음을 빼앗아 그것을 조종하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진리의 마음을 뽑아내면 원수 마귀 사단이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능히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무의 큰 뿌리를 뽑아내면 수많은 잔뿌리가 따라 뽑혀 나오듯이 비진리의 마음을 빼내면 신속히 진리의 마음을 이뤄 무엇이든 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2. 옥토의 마음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17가지 비진리의 마음

첫 번째, 강박한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아주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보아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늘 의심함으로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두 번째, 비겁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이나 몫을 회피하는 마음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창 3:11-12).

세 번째, 물러서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옳고 바른 줄 알면서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물러서는 마음입니다. 외적인 압력이 오면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는 자신

에게 올 불이익이나 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유익에 관계없는 일에는 ‘내가 상관해서 무엇하냐.’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머리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명예나 권세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미 머리된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서 아랫사람을 섬기든지, 대접이나 섬김을 받고자 하는지를 점검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번 마음먹은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이렇다저렇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배신도 나옵니다. 감사함은 마음에서 뽑아내야 할 악의 큰 뿌리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돌려대는 마음입니다. 감사함에서 비롯된 마음으로서, 어떤 일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그때마다 금방 말이 달라지면서 이유를 맵니다. 핑계나 변명을 잘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속이고 숨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은 숨기는 마음이 있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말은 하고 불리한 말은 하지 않거나, 자신이 잘한 것은 불려서 말하고 못한 것은 축소해 말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모른 체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잘못된 일에 대해 자신이 했으면서도 안 한 체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명을 쓰고 애매히 고통을 당해도 모른 체하고, 누군가 알고 지적하면 그제야 실수했다는 등 변명을 합니다.

열 번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고 잘난 체하며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더 나은 좋은 모습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앞에서 감추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애써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에게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비슷한 조건과 환경에서 상대가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불편해집니다.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두 번째, 자기 생각대로 좇아 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해 소외시키거나, 자신을 지적하면 미워하고 외면합니다. 지적받기를 싫어하니 누군가 진리로 권면이나 지적을 하면 그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열세 번째, 무례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무례한 모습이 나옵니다.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자신에게만 맞춰가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禮)에 대해 배우지 못해 무례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네 번째,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거나 내 생각과 마음에 맞을 때야야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베푸는 마음입니다. 특히 주의 종과 일꾼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 내 유익만 구하게 되니 피해 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열다섯 번째, 남의 눈치만 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니 사람 눈치를 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보는 데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없는 데에서는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진정 믿음이 있다면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열여섯 번째, 변명하는 마음입니다. 거짓된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의 모습으로,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이유나 구실을 대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경우도 있지만, 책임을 면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선 안 됩니다.

열일곱 번째, 서운한 마음입니다. 주로 자신이 행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생기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도 틈타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감정을 품다가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열심도 개간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비진리의 마음을 신속히 버리고 무엇이든 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의 비유를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을 옥토밭, 가시떨기밭, 돌밭, 길가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옥토로 개간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며 딱딱한 흙을 부숴야 합니다. 우리가 옥토의 마음을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마음을 이뤄야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사 람들이 자기 마음을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 빼앗겼다는 표현을 쓰듯이 주 안에서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주님, 천국, 진리에 두어야 하는데 만일 세상에 두면 원수 마귀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쯤이야.’ 하면서 조금씩 내어 주다 보면 결국 마음 전체를 빼앗겨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예배 시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Q.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남편이나 가족이 핍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A.

● 첫 번째, 자신의 부족함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면 누구보다도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내가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요.” 한다거나 혹은 사랑을 주고 받기 원하는 남편에게 “그런 육적인 사랑을 제게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니며 단지 상대의 마음과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일 따름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정녕 믿음이 있다면 누구라 해도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며 사랑과 덕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온 집에 충성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는 대충 하면서 심방한다고 늘 사적인 전화를 하고 자리를 비우는 등 불성실한 모습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라면 부모에 대한 도리를 해야 하고,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주부라면 아내와 어머니로서 마땅한 도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면 믿음 있는 남편이라도 아내에게 불만이 생기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더욱 아내를 핍박하고 나아가 교회와 하나님이 싫어질 것입니다. 혹여라도 남편을 무시하거나 통명스럽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비진리가 아니라면 남편의 뜻에 맞춰 주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섬겨 줄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데도 핍박하는 남편이나 가족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 두 번째,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했어도 기쁨과 믿음 가운데 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슬픔으로 참는다면 이는 참 믿음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슬픔과 탄식 속에 울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불같은 중심의 기도를 올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에는 반드시 자신에게도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이 오지요. 빌립보서 4장 4~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진정 믿음으로 행한다면 응답받은 줄 믿고 기도하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실라가 착고에 채여 깊은 감옥에 있어도 찬미를 올릴 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임혀 주십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믿음이 오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이 임하지요(마 9:29). 이것이 바로 응답과 축복의 비결입니다.

● 세 번째, 지혜로운 방법론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맡기되 영적인 믿음의 받침대는 스스로 행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32-33장을 보면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오는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어떻게 행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저 기도하고 금식만 하면서 상황이 되는 대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중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당면한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조목조목 아뢰었지요. 이처럼 야곱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 위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받침대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비록 형 에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겉으로만 가식적인 말과 행함을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단 가운데 겸비한 마음이 됐고 철저히 낮아진 중심으로 형 에서에게 나아가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으며 형 에서의 마음에도 감동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주관하시고 원수라도 화목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내가 남편의 강요에 의해 이혼해야 할 경우 선으로 행하되 대안도 없이 상대가 원하는 합의서에 무조건 서명을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도움 받을 길을 알아보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해 선한 방법 가운데 최소한의 권한은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불같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상황마다 적절한 지혜와 방법론을 알려 주십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깨우침을 주시고 잘못 행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지요.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토대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흐지부지하게 상황에 휩쓸려가는 것은 응답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이고 명백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하며, 압박감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야곱처럼 중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평안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믿음의 행함을 보이면 되겠다 하는 지혜로운 방법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GCN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06.21~06.27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2015 온 영의 흐름 ■ 심계명 10 ■ 우리가 바라볼 것 ■ 1차 영혼육 1-2 ■ 십자가의 도 6-10 ■ 천국 46-50 ■ 창세기 강해 88-92 ■ 믿음의 분량 6-10 ■ 요한계시록 강해 78 ■ 죄의 뿌리와 성경 1-2 ■ 믿음을 축량하시니 21-22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3	GCN TV설교 ■ 육적인 사랑 1 (이수진 목사) ■ 교만 1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38 (이희선 목사)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3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8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9 (김수정 목사) ■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재정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일곱달꿈 어여쁜 울동 38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9 ■ 옛날 옛적에 9 ■ English 7 ■ 즐거운 요리 16 ■ 내 마음의 찬양 13 ■ 흥겨운 소리 2 ■ 창조와 과학 11 ■ 모두 드러오 30 ■ 뷰티플레이프 3	해외성회 프로그램 ■ 뉴욕 연합대성회 2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5-6 ■ 회상 15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전 세계 영혼들에게 성결 복음의 책자가 들리는 그날까지~”

이호상 피택 장로 (46세, 1대대 5교구)



아내 안정은 집사

저는 레위족(교회 상근직원)으로서 구원의 확신조차 없음을 깨우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지요.

그런데 2012년 6월, 다년간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온 우림복의 부스 기획 및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서다보니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반드시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나오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2012년 가을, 하반기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면서 변화가 더딘 것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간구했습니다.

먼저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 헐기를 버리고자 온유한 마음으로, 불편함과 서운함 등 감정을 버리기 위해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판단과 정죄를 버리기 위해 선으로 바

라보는 마음으로 채워갔지요. 또한 감사와 회개의 일기장을 각각 만들어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록하고 특히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글을 써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가지며 그 사랑을 느껴갔습니다. 이뿐 아니라 학생주일학교 공과교재 ‘믿음의 분량’의 내용대로 교사인 제가 먼저 행하면서 가르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람도 느끼고 자신감도 주어지면서 그해 12월, 믿음의 반석에 서는 축복을 받았지요.

2014년에는 교사연합회 연합회장이라는 귀한 사명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저런 학생들을 대할 때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물론, 당회장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지.’ 하는 마음에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학생들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레위족으로서 하나님 일을 최우선하니 하나님께서는 그해 4월,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교구 조장의 사명까지 주어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깨우치며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당회장님의 주옥같은 저서들을 전 세계 영혼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달려갑니다. 마지막 때 만민을 향한 섭리를 이루시며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1992년 2월, 군대 교회에서 동계수련회에 참석해 성령 체험을 하며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10월에 제대 후 복학을 앞두고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빛과소금 선교회(주일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초교과적인 선교회)를 통해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돼 그 다음 달부터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명쾌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더욱이 당회장님의 기도로 10년 이상 저를 괴롭히던 양쪽 눈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제 신앙은 뜨거워졌지요.

1997년 9월, 문서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편집국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니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모 방송의 거짓된 왜곡, 편파보도로 인해 당회장님 저서의 전국 서점 보급이 난관에 부딪히자 저는 유통, 영업을 자원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며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성경이 참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무수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당회장님을 전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거래 서점을 확보할 수 있었지요.

2007년, 편집국에서 영업팀이 분리돼 저는 ‘우림복’으로 소속됐습니다. 그런데 웬지 고립된 듯한 느낌과 업무에 대해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며 점점 하나님 일에 소홀해졌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고 기도생활도 중단치 못했지요. 2009년 3월, 결혼해 잠시 즐거운 듯했지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니 마음은 곤고했습니다. 언젠가는 지옥으로 가는 꿈을 꾸다가 놀래서 벌떡 일어난 일도 있었지요.

“손수건 기도로 대상포진을 치료받았어요”

마일린 마사캄뽀 성도 (34세, 필리핀 다바오만민교회)

2012년 2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일거리가 없어 끼니를 거를 정도로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전도로 다바오만민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심신이 지친 제게 천국 소망이 주어졌고, 남편의 일거리도 바로 생기는 축복까지 받았지요. 그런데 제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침대 때부터 피웠던 담배를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4년 초 임신을 했는데, 출산하기 3, 4일 전부터 얼굴과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임신중독증이었지요. 힘들게 11월 22일 출산을 했는데, 아기는 산소가 부족해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 정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나올 뒤 제 몸에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등에서부터 가슴까지 수포가 생기고 너무 가렵고 통증이 심해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대상포진이었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저는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15년 1월,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화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행 19:11~12)으로 김은자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니. 세 차례 손수건 기도를 받고 나자 통증과 가려움증이 사라졌고, 수포가 터지고 마르면서 딱지가 생겨 깨끗이 치료됐지요.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을 통해 끊고자 노력해도 끊지 못했던 담배를 끊을 수 있었고 아기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받기 전



기도받은 후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동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도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성북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